

현대복식에 나타난 팝아트 요소의 코드화 -200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

위 재 선* · 나 수 임†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부* · 의상디자인전공 교수†

A Study on the Code of Pop. Art in Modern Style of Clothing -Since the Early of the 2000's-

Jae-Sun Wi and Soo-Im Rha*

Gradute School of Design,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2004. 3. 16. 접수 : 2004. 5. 22. 채택)

Abstract

This article aimed at semiotically analyzing and encoding the characteristics of Pop. Artistic style of a dress in the 2000's, and understanding social and cultural meaning to characteristics revealed at modern style of a dress. As research methods, Pop. Art factors were adjusted to non-individuality, openness, criticism, parody through precedent research comparing and considering Pop. art, and 61 photos were selected, and they were analyzed into signifier and signified. It'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Non-individualistic image revealed modern style of a dress was intensively indicated at the pattern aspect of Pop. Art style of a dress, and any remarkable characteristics were not shown at the form aspect. Non-individuality was actively and progressively expressed due to the effect of the 2000's trends to pursue of frank desire, artistic and sensual life. For open image revealed at modern style of a dress, the characteristics were intensively highlighted at the details and accessories of style of a dress, and at the details and accessories of style of a dress, and at textile and pattern aspect, and notable signifier did not turn up. Pop. Artistic eroticism in the 2000's could be seen to unconditionally expose, or commercialize sex, but fashionably and gorgeously re-interpret it, which was found that the expression to women was changed in a free and emotionally-oriented way by the influence of feminism, expansion of feministic thought and optimism on New-millennium. At parody, simple and humorous parody rather than deep intended or heavy mattered one was seen, which means the effect of the 21st culture pursuing pleasure, fun and humor appeared as an positive parody phenomenon. It is found that the Pop. Art style of a dress in the 2000s shows up as a feministic, bright, cheerful Pop. Art in that it creates exaggerated harmony mixed with decorativeness ad functionalism, and pursue for frank desire and reflects optimistic trend of New Millenium seeking for fun and humor.

† 교신처자 E-mail : sina@smu.ac.kr

Key words: code(코드), eroticism(에로티시즘), non-individuality(비개성), openness(개방성), parody(패러디), Pop. Art(팝아트).

I. 서 론

오늘날의 패션은 정치, 경제, 예술, 종교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무한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특히 팝아트나 옵아트¹⁾는 현대복식에 커다란 맥을 이루고 있다.

미술사의 한 사조인 팝아트는 영국보다 대량생산과 그에 따른 소비문화가 활발하였던 미국 사회에서 한층 더 심화되었다. 이전에는 엘리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미술의 주체가 거대해진 대중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문화 소비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무한한 영향을 미친 팝아트는 팝패션을 창조하면서 복식사에 커다란 맥을 형성하였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제 3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사회문화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 중심의 기능적인 문화에서 여가 중심의 장식적인 문화로, 정선에서 물질로, 가림의 문화에서 노출의 문화로, 무거운 이념의 문화에서 가벼운 웃음의 문화로, 창작의 문화에서 모방과 복제의 문화로, 또한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문화의 중심과 강조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도 과거의 단일미디어에서 복합미디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흐름에 따라 2000년대에는 일률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유행이 더욱 다원화되고 낭만적 혼합형으로 나타나 장식주의와 기능주의의 과장된 조화, 뉴밀레니엄적인 낙관론과 완벽한 미래에 대한 추구, 즐거움과 유희를 추구하는 등의 팝 아트적인 패션이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다.

지금까지 팝아트와 패션에 대한 연구는 팝 패션

의 특성을 정리하거나 1960년대 팝 패션과 각 시기별 팝 패션을 비교하여 그 현상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연구²⁾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나타난 팝 패션에서 팝 아트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기호학적인 방법으로 코드화하고자 한다. 즉 1960년대 서구 산업사회의 현실을 내부로 수용한 팝 아트가 2000년대 트렌드의 영향으로 재부각됨을 인지하고, 2000년대 팝 아트적 복식의 특성을 분석하고 코드화하여, 팝 아트가 현대 복식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팝 아트를 비교 고찰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팝아트의 여러 특성 중에서 공통되는 요소들을 정리해서 비개성, 개방성, 에로티시즘, 패러디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패션전문지인 2000 S/S~2002 F/W COLLECTIONS지 8권과 2000 S/S~2003 F/W COLLECTIONS 6권, 2000 S/S~2003 F/W FASHION NEWS 지 8권으로 한정하고 그 중 팝 아트적 특성이 발견된 복식 사진 61점을 선정하고 분류하여 기호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작품선정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류학 전공 3인의 분석자가 팝 아트의 특징적 요소를 숙지한 후에 공통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복식이 그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연구하여 패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통해 다음의 패션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팝 아트와 패션

- 1) 이신아, “팝 아트와 복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양선미, “1990년대에 대표된 팝아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천희정, “팝 아트와 1960년대 패션”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정혜선, “패션에 미친 팝 아트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손미경, “현대패션에 나타난 팝 아트스타일의 토탈코디네이션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팝 아트'라는 용어는 대중예술의 순말로서 영국의 미술 평론가 로런스 앨로웨이(Lawrence Alloway)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1954년~57년 사이 젊은 미술학도들이 만든 인디펜던트 그룹 회원들의 공동 작품 및 토론과 관련된 대화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비평가 앨로웨이는 "팝 아트가 1960년대 초반 미국에서 전개되고 유행된 미술사조에 있어서 하나의 양식이며, 특히 당시의 연재만화(Comicstrips)와 선전용 포스터와 같은 응용예술 부분에서 착안하여 과장된 형태와 이미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구성화회의 (figurative painting)의 한 양식이다."²⁾라고 하였다. 원래는 메스컴을 지배하여 대중문화가 만들어 내는 '대중예술을 가르키기 위한 편리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팝 아트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순수미술'의 문맥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미술가들의 활동을 가르키는 명칭이 되었으나 이어 1962년에는 대중적 이미지를 구사하는 순수 미술가들의 활동을 논하기 위하여 확대적으로 사용되었다.³⁾

팝 아트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특징적인 전위예술 운동으로서 20세기 이전의 기존적이며 획일적인 전통사회에 대한 반항 내지는 경멸감의 표시로 허무주의, 파괴, 부조리 등에 관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 기계문명과 상업주의의 팽배 속에서 기존의 관념과 표현방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술의 무한한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팝 아트는 대중이 이용하는 물품을 일정한 양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환경과 정신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며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평범하고 속된 것, 난해하고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쉽고 간편한 것을 내세우며 수용 태도면에서 파괴와 부정보다는 긍정과 탐색에 관심이 주어져, 유머와 윌트 등 낙천적 기질이 강하게 보여지는 특정 예술이다.⁴⁾

팝아트 작가들은 일상의 이미지를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호나 기호체계로 사용했다.

특히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스타인, 클라스 올덴버그 등은 사회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마릴린 폰로의 얼굴, 미키 마우스의 이미지, 세븐업의 트레이드 마크, 그리고 디크레이시의 연속만화 따위를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기호체계와 그들 자신의 테마를 겹쳐서 표현하였다.

팝 아트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친숙해져 있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물체들을 기호나 기호체계로 사용하여, 개인의 개성을 숨긴 대중적 이미지인 비개성,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 개방적인 전위적 표현, 성을 상품화하는 현대의 성 개념속에 회화적 의미를 가미한 에로티시즘 그리고 긍정적일 낙천성과 유머 등은 그 기호체계들의 상징으로 선보여준 예술이다. 이와 같은 1960년대의 팝 아트에 영향을 받은 패션은 전통적인 복식 개념에서 벗어난 독특하고 개성적인 스타일을 창조하여 기성의 디자이너들에게 패션 디자인 창조의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으며, 인간성 회복의 상징에 신선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다.

팝 아트를 복식과 관련하여 연구한 선행논문들을 고찰해 보면 양선미⁵⁾는 팝 아트를 개방성, 비개성, 패러디성, 미래지향으로 나누고 '90년대 사조 속에 팝의 특성을 패러디, 미니멀리즘, 사이버묵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천희정⁶⁾은 팝 아트가 '60년대에 미친 영향을 영 패션화, 유니섹스 의복행동, 대담한 노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복식시도, 검정색에서 극채색으로 색상의 변화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특징적으로 색스와 매력을 중시하는 에로티시즘의 대담한 노출 시도로 표현되었다고 하였다. 이신아⁷⁾는 팝 아트 시대로 1960년대 패션을 영 패션화와 패션의 대중화, 패션의 다양화로 분류하고 팝 아트와 현대복식을 이미지의 대중화, 레터링과 그래픽도 기법, 에로티시즘, 맛상블라쥬와 전위예술의 표현으로 연계하였다. 또한 대중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개인적인 것에서 대중적인 것으로 이미지를 대중화한 것이며, 이런 표현은 팝 아트의 익명성, 비개성, 대중성, 통속

2) Lawrence Alloway, *American Pop Ar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5), p. 119.

3) 루시 R. 라파드, *팝아트*, 전경희 역 (서울: 미진사, 1991), p. 7.

4) 양선미, *Op. cit.*, p. 7.

5) *Ibid.*, p. 7.

6) 천희정, *Op. cit.*, pp. 33-56.

7) 이신아, *Op. cit.*, pp. 54-54.

성을 표출한다고 하였다. 그 외 에로티시즘적 표출을 특징으로 삼았고, 표현으로는 그라피토 기법, 전위적인 시도, 앳상블라주 기법으로 분류하였다. 임애진⁸⁾은 영 패션과 에로티시즘과 시각적 효과로 분류하였는데, 그 시각적 효과로는 전위적 기법, 그라피토, 앳상블라주 기법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정혜선⁹⁾은 팝 아트적 경향으로서의 다양화로 영패션화, 패션의 다양화 60년대 팝패션으로부터의 핑크패션으로 분류하였다. 또 William Eddie¹⁰⁾는 팝 아트란 대중적이며, 일시적이고, 변하기 쉽고, 소비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고, 재미와 유머가 있어 풍자적이어야 하며, 대량 생산적이고, 생산감이 넘치는 청소년 문화에 근접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팝아트의 특성은 개방성, 비개성, 패러디성, 에로티시즘, 미래지향성, 익명성, 대중성, 통속성 등이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개방성, 비개성, 패러디성, 에로티시즘의 4가지 요소로 분류하고자 한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팝아트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코드화

복식은 의사전달을 위해 어떤 시각적 영상이 어떤 개념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외형적 기호를 사용함

으로서 시각영상이라는 감각적 측면과 개념이라는 비감각적, 관념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는 기호이다.¹¹⁾

기호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며 기호표현(기표)과 기호내용(기의)의 통합체로 자의성을 지닌 것으로서 내포적 의미나 무엇을 표현하려는 두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안물이다. 이러한 기호표현과 기호내용의 관계는 자의적이어서 그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복식에서 나타나는 복식기표는 시각적 이미지를 취하고 있으며 복식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어 보이는 면, 즉 형태, 디테일, 색상, 직물, 무늬, 약세서리 등의 물리적 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정신적인 효과를 일으켜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각각의 디자인적 요소가 담고 있는 추상적 개념인 기의를 갖게 되는데 그 의미들은 체계내에서 부여받는 다른 기의들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 각각의 기의는 통합적인 이미지, 즉 기호로 대표되며 그 기호 자신, 즉 복식이 하나의 압축된 기표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즉 복식은 의사전달을 위한 외형적 기호와 관념적 측면이 결합하여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가치인 기호를 창출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식은 인간의 의사전달을 위한 상징이며 자기표시 수단과 아울러 사회·문화적 표출로 시각언어적인 역할을 하며 시대적 유행의 특징을 기호화

<표 1> 팝 아트의 요소

	팝적 요소	영향	기법
비개성	- 개인적인 것에서 대중적이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냄 - 기계적 기법에 의한 대량복제, 반복 - 모든 기법이 다양하게 출현 = 대중성, 통속성, 익명성	영패션화 에로티시즘 미니멀리즘 사이버룩	앳상블라주 그라피티 실크스크린 전위 레터링 패치워크
개방성	- 제한을 두지 않는 대담하고 충격적인 표현 - 주로 앳상블라주 기법, 전위 예술적 기법 사용 - 상호 모순되는 형상을 병존, 배치 = 전위성, 대담성		
에로티시즘	- 섹스와 성적 매력을 중시 - 주로 시스투 기법		
패러디	- 웃음과 해학, 비판적 시각, 의도적인 표현 = 의도성		

8) 임애진, "팝아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p. 27-30.

9) 정혜선, *Op. cit.*, pp. 29-52.

10) William Eddie, *History of Collage* (London: Studio Vista, 1975), p. 159.

11) 한명숙, "한국복식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 57.

하여 나타내어지는 것이다. 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행이 반영되어 있어 유행은 일종의 사회현상으로서 유행현상을 주시하면 그 속에 문화적 지시체계가 존재한다. 또한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행할 수 있는 기본도구로서 일정한 규칙에 지배되는 기호들의 조직화된 체계, 또는 의미작용의 체계이며 기호들의 체계화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이 규칙은 약호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 사이에 암묵적, 명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되며 관습적이거나 사회성원들에 의해 합의된 규칙의 규제를 받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은 코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

코드의 개념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우리들에게 기표와 기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상의 법칙이나 원리가 되는 것이다. 즉 기표와 기의의 통합, 이해, 해석은 코드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코드에 의해 우리는 복식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으며 코드는 문화적으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Davis¹³⁾는 하나의 코드는 시각적 실체가 의미를 전달하도록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복식의 코드는 암호문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복식의 코드는 "낮은 의미론"을 갖는다고 하여 이를 초기형태의 유사코드라고 제시하고 있다. 복식기호에 있어서 코드는 문화에 의해서 제공된 중요한 패턴, 즉 연상의 법칙을 말한다.

위와 같이 복식코드는 착용자의 복식을 나타내주는 다양한 각각의 단서이며 하나의 특징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즉, 복식의 형태, 디테일, 색상, 직물, 무늬, 약세서리 등을 접촉하는 수신자는 주어진 상황과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복식을 통해 나타난 복식코드를 판단하여 의미를 전달받게 된다. 이러한 코드는 복식항목과 장식들이 함께 입혀져야 함을 내포하는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한 시대에 유행하는 복식이미지들을 복식기표로 코드화 할 수 있다.

이렇듯 복식의 코드는 문화적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들을 제공하며 이에 의해서 우리는 복식의 메시

〈표 2〉 팝아트 패션의 기호

기호 : 팝 아트 패션	
기표: 복식의 시각되어지는 물리적인 실체 (형태, 디테일, 색상, 직물, 무늬, 약세서리)	기의 :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신적, 추상적 개념

지를 전달받게 된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문화의 표출로 시각언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III. 2000년대 복식에 나타난 팝 아트 요소의 기호학적 분석

1. 비개성

비개성이란 작품에서 개개인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생활 속에 만연되어 있는 통속적이고 대중적 이미지를 소재로 삼고 기계적으로 재현하거나 복사하는 등과 같은 과정생략으로 인해서 대중적, 통속적, 비개성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말한다.¹⁴⁾

팝작가들은 광고와 대중매체의 과잉폭발로 인하여 소위 "스타주의"가 만연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에 등장한 스타, 대중들의 생활에 만연되어 있는 시각적인 힘인 대량생산된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소재로 선택했다. 이러한 표현은 대중스타의 얼굴, 광고, 상표, 만화, 극기, 지폐, 영화 등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실크스크린 복제기법으로 복식에 이용한 것을 말하며 팝아트의 기호, 문자, 숫자, 그래픽도기법이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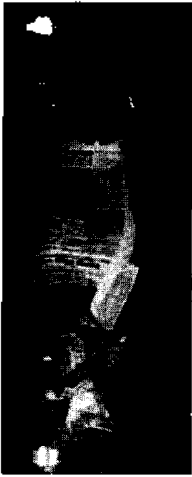
이와 같은 팝아트의 비개성적 특성이 패션에 표현된 사진 24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 〈그림 5〉

2000년대 복식에서 비개성의 요소로 사용된 복식형태의 기표는 X, H라인 실투엿의 윈프스, 코트와 X라인의 자켓 가디건, 케이프 및 코콘모양의 배럴드 실투엿, 레깅스 등의 형태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 테일러드칼라, 셔츠칼라, 라운드네크라인, 스퀘어, 케미슬네크라인 등의 디테일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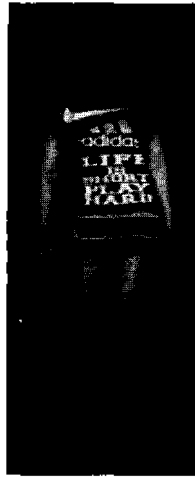
12) 박정순, *대중매체의 기호학* (서울: 나남, 1995), p. 169.

13) F.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 8-15.

14) 정혜선, *Op. cit.*, p. 28.



〈그림 1〉 Christian Dior.
(2000~2001 A/W)



〈그림 2〉 Fred Sathal.
(2002 S/S)



〈그림 5〉 Fake London.
(2002 S/S)



〈그림 3〉 Seregin &
Vasiliev. (2001~2002 A/W)



〈그림 4〉 John Galino.
(2001 S/S)

말단, 소매, 넥라인 등을 비대칭으로 계단한 디테일로 내담하고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지퍼, 슬릿, 바인딩, 패치워크, 턱, 술장식 등의 디테일이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색상은 빨간색계열, 파랑계열 등의 색채사용으로 화려하고 경쾌함을 나타내었다. 특히 비개성적 이미지에서는 무채색이 많이 사용되어 흰색과 검정색, 회색계열의 색상이 많았고 그 외 보라계열 분홍계열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비개성은 그 특성상 형태보다는 직물에서 특성이 많이 나타났다. 모직물, 면직물, 모피〈그림 3〉, 니트로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비닐〈그림 4〉, 새틴, 가죽 등의 광택소재를 사용하여 과시적이고 현대적인 세련미를 표현하고 있다.

무늬는 영문로고, 알파벳, 신문활자〈그림 1〉, 〈그림 4〉를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표적인 대중적 이미지를 표현하여 개성을 감춘, 대중적이고 복제적인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사진이나 만화보다는 영문 알파벳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여러 가지 대중적인 모티프들이 단독보다는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폐, 숫자, 국기 등도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옛 인물의 사진, 스타사진, 동물, 별, 해골 등의 무늬가 복제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표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팝 아트의 요소 중 비개성적 특성은 2000년대 복식에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전에는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았던 등속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선택하여 단순구성으로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팝 아트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2000년대의 시대성을 반영하는 대중적 소재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2000년대의 팝 패션은 기존의 팝 아트적 요소를 2000년에 맞게 재해석하여 가볍고

즐겁게 표현되고 있었다. 또한 2000년대에 나타난 명품추구 경향으로 권위적으로 나타나던 브랜드의 로고<그림 2>들이 그라피티 기법으로 옷이나 악세서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한 뉴밀레니엄의 낙관론에서 비롯된 재미와 유머의 추구로 무거운 주제를 회피하고 즐거운 해석으로 표현되고 있다.

비개성은 '이미지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대중화, 형상의 복제, 표현기법의 보편화에 의해 예술을 개인적인 것에서 대중적인 것으로 개방시켰다. 팝 이미지는 광고, 상표, 만화, 영화 등의 대중적 이미지를 한번 더 보기 위한 시각적 재현으로 대중적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현대 인간의 감수성을 의식화한 것이다.

민속적 의미인 성조기나 표적 등을 사용하여 자극적이며, 선명한 효과로 디자인 요소인 대칭과 균형을 강조하고, 화면에 분화와 숫자 등의 기호를 사용한 팝아트는 날카롭고 선명한 효과로 비개성적이며 반감정적인 차디찬 기계적 감성을 추구하였다. 팝 아트 작가들은 손으로 하는 작업을 기피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실크스크린으로 판을 만든 뒤 적당한 색깔로 찍어내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한 작품은 누구의 작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개성적이다. 그리하여 팝 이미지는 익명성, 비개성, 대중성, 통속성을 띠게 되고 이러한 표현 특성이 현대 복식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00년대에 비개성은 1960년대의 비개성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대중스타의 얼굴을 실크스크린<그림 3>하거나, 상표광고<그림 2>, 알파벳, 국기, 지폐, 신문<그림 1> 등의 이미지를 재현하여 여러 가지 비개성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즉 <그림 4>에서 보여지듯 알파벳과 신문, 로고 등이 모두 함께 출현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이 해골, 국기, 지폐 등이 혼합되어 선보이는데 이는 변화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지만 환상이나 모험을 즐기고 즐거움을 소구하는 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겠다.

2. 개방성

개방성은 '전위예술의 반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 기존적인 경험의 인지 및 고양화의 방식에 대한 반항으로 확일적인 문화, 사회, 정치에 대한 반항을 뜻하기도 한다. 팝아트에서 개방성의 특징은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이전에는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던 일상생활 주변의 비예술적 오브제를 선택하려는 전위적 시도와 재래의 조각이나 회화의 기법에 반대하는 맛상블라주의 표현인 개방적 측면¹⁵⁾, 그리고 보편타당성을 거부하고 즉흥적이고 전위적인 패션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개방성을 표현하는 팝 작가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발달에 따른 과학문명의 영향으로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자체에 더 의미를 부여했으며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이나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회화작품의 주제로 선택하였다. 이는 사회적 불안을 의식하고 기존의 가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절감함에 기인하며,¹⁶⁾ 현대문명의 특색인 비개성적이고 냉담한 이미지를 기계적으로 표현하고 대중적인 소재를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관심의 대상인 인간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팝 아트가 소비문화를 사랑하고 도시와 기술의 문화를 애호하는데서 시작되었듯이, 제조업분야의 현저한 발달은 소재분 다양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직물에 한정된 소재 개념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 비닐, 셀로판, 인공피혁, 합성수지 등에 이르기까지 소재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복식 디자인의 과감한 변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재료, 기법, 발상의 부제한 개방을 뜻하는 개방성은 벽지, 사진, 삽화 등을 오려내어 프린트하여 붙인 재미있는 콜라주북과 주로 잠동사니, 패치워크 방법으로 표현한 콜라주패션을 볼 수 있으며 오브제를 부착하거나 매달아 움직이게 하는 전위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이는 기존의 다듬어져 있는 심미적 균형미보다는 새롭고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하거나 전위적인 3차원적 입체 표현을 뜻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61점 사진 중 개방적 요소로 분류된 것은 5점으로 전체에서 8.2%를 차지했다. 이러한 팝 아트의 개방적 특성이 패션에 표현된 사진 5점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그림 10>과 같다.

15) 이신아, *Op. cit.*, p. 47.

16) 전경희, *팝아트* (서울:미진사, 1990), p. 47.



〈그림 6〉 Othya.
(2000~2001 A/W)



〈그림 7〉 Christian Dior.
(2002 S/S)



〈그림 10〉 Paco Rabanne.
(2000 S/S)



〈그림 8〉 Koji Tatsuno.
(2000~2001 A/W)



〈그림 9〉 Liberty.
(2001 S/S)

복식의 형태기표는 주로 H라인 원피스, 코트, 스트레이트 팬츠, 민소매 셔츠, 긴 티어드 스커트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직선적인 형태들이 사용되어져 편안하고 활동적인 의미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전위적인 디테일이나 과도한 악세서리의 사용을 위해 의도된 형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디테일은 가위밥, 신체를 드러내는 과도한 올풀림 〈그림 8〉, 원형 플라스틱 부착, 형광이나 오래된 종이의 부착 〈그림 10〉, 단추, 테일러드 칼라, 지퍼, 허

리 고부밴드 등의 디테일도 모두 전위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되었다.

색상은 빨강, 주황, 파랑 등의 강하고 비비드한 색상을 사용하여, 다른 디테일이나 악세서리들의 대담한 이미지를 더 강조하여 표현되었고, 지극히 선명하고 강한 대비의 배색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은색과 무채색 중 검정색의 빈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흰색은 적게 나타났다.

직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게 혼용되었는 바 대체적으로 니트, 메쉬(Mesh), 면, 모직, 광택소재가 골고루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소재들이 전위적으로 부착되는 형태를 보여 특히 사진상에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무늬기표는 영어분장, 신문, 상표 등이 소재로 사용되었고 또한 다탄체크 〈그림 8〉, 스트라이프, 불규칙 꽃무늬, 잔잔한 꽃무늬 등 여러 가지들이 혼합적으로 사용되었고 잔잔한 꽃무늬, 페이플러 등은 전위적인 분위기의 연출에 예상 밖의 여성스러움이나 전원적인 무늬로 사용되었다.

악세서리는 미래적이고 전위적인 이미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내어 금속 안테나, 금속 자동차, 병 〈그림 6〉, 금속이 달린 체인 벨트, 어지러운 오브제를 부착한 모자 〈그림 8〉, 주머니 목걸이나 상의를 모두 덮는 배지(Badge) 〈그림 9〉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팝아트 패션에서의 개

망적 특성은 주로 디테일과 악세서리에서 많이 표현되었는 바 선위적, 미래적, 장식적인 악세서리를 대담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의 팝패션에 나타난 개방적 특성은 자기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나만을 위해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미완의 제품을 추구하고, 고정관념을 깨는 기준과 전혀 다른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를 중시¹⁷⁾하는 2000년대 트렌드의 영향으로 벗어나 신체가 노출되는 과도하고 선위적인 디테일<그림 8>, 금속 안테나 부착<그림 6>과 같은 미래적인 악세서리, 은은한 베지를 온몸에 부착한 여성스런 요소<그림 9>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다소 충격적이고 전위적인 표현법인 개방성이 많은 빈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벼운 재미와 유머의 추구, 솔직욕망을 지향하는 2000년대 트렌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3. 에로티시즘

1950년대 말부터 싹트기 시작한 팝아트는 현대 산업사회가 낳은 물질적인 소재에 매료되었으며 그러한 소재들을 통하여 스피드, 활력, 에로티시즘, 새로움과 정열을 즐겨 표현하였고 물질적인 대중화는 쾌락분화의 대두로 성을 상품화하는 현상까지 만들었으나, 팝 작가들은 성의 상품화로 상업화되어 가는 현대의 성개념 속에서도 회화적 의미를 잃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¹⁸⁾

이러한 팝 아트의 에로티시즘 이미지는 의상에서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노출 경향은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체를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새로운 시도이며 기존의 개념으로는 의상이 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등장하여¹⁹⁾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점에서 개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팝 아트의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상품화된 성을 적절히 가볍고 위트있게 넘어가는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2000년대

복식에서 에로티시즘은 낙관론적 관점을 통해 따뜻한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Retro Reference 트렌드의 영향으로 여성적이면서 캐서너블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선정된 61점 사진 작품 중 에로티시즘적 요소로 분류된 것은 11점으로 전체의 18%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팝 아트의 에로티시즘적 특성이 나타난 사진 11점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1>~<그림 16>과 같다.

2000년대 복식에서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로 사용된 복식의 기표에서 형태는 X라인 원피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H라인 원피스, 마이크로 미니의 스트레이트 스커트, A라인 스커트, 민소매의 탑, 비대칭 탑, 브리프, 브라, 수영복 등의 개성적이고 섹시한 아이템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복식의 디테일도 에로티시즘적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로우 웨이스트, 비대칭 밑단, 비대칭 네크라인, 술장식 등 캐서너블하고 개성적인 디테일과 가터벨트, 브라, 극소화한 팬티 등은 극도의 섹시함을 나타내는 디테일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 키홀넥크라인, 홀터넥, 케비솔네크라인 등 깊게 파인 네크라인이 주로 사용되어 섹시하고 개성적인



<그림 11> Heatherette. (2002 S/S)



<그림 12> Scott Henshall. (2002 S/S)

17) 삼성패션연구소, 2001s/s Woman Fashion Trend.

18) 유태순, 박희숙, "패션에 나타난 팝사조중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여성문제연구소, 2000), p. 94.

19)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서양복식사* (서울: 형성출판사, 1987), p. 365.



〈그림 13〉 Scott Henshall. (2002 S/S)



〈그림 14〉 Sonia Rykiel. (2000 S/S)



〈그림 15〉 Dissel style lab. (2001~2002 A/W)



〈그림 16〉 Randolph Duke. (2001 S/S)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색상은 무채색인 흰색, 검정색이 많이 사용되어졌고, 은색, 금색 등의 사용으로 신비로움을 나타냈다. 그 외 파스텔 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분홍색계열, 갈색계열, 파랑색 계열 등은 사랑스럽고 신비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직물은 쉬폰의 사용이 가장 많아 극도의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고, 광택소재의 사용으로 섹시하고

화려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었다. 그 밖에 망사, 비닐, 레이스 특히 테이프의 사용으로 현대적 섹시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무늬기표에서는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특징적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트무늬〈그림 13〉, 알파벳, 별, 입술, 인형그림, 인체를 덮고 있는 손모양〈그림 12〉 등이 고루 나타났는데, 하트나 입술〈그림 11〉 등의 무늬는 에로티시즘을 해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대표적 무늬임을 알 수 있다.

악세서리는 금속, 가죽, 밴드 종류의 팔찌, 한쪽 귀걸이, 징 박힌 샌들 등의 강렬하고 정열적인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었고 특히 망사스타킹〈그림 13〉, 〈그림 15〉, 호피무늬스타킹 등 섹시한 악세서리들의 사용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해학적인 섹시함을 주는 수영복에 은은한 베일의 착용〈그림 11〉등은 악세서리에서의 에로티시즘을 의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보다 더 자유롭게 개성적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의 팝아트 패션에서 에로티시즘적 특징은 주로 복식의 형태와 디테일에서 전형적인 여성스러움과 섹시한 요소들이 집중되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형태는 무릎 위 길이의 X라인이나 무릎 길이의 H라인 원피스가 많이 사용되고, 디테일은 프릴같은 극도의 여성스러움과 가터벨트 같은 개성적인 섹시함이 드러나는 디테일들이 같이 사용되었다. 직물은 쉬폰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광택소재는 화려한 섹시함을 나타내고 있었고 2000년대는 비치는 소재나 레이스같은 대표적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직물과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직물이 구분 없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무늬에서는 에로티시즘적인 요소를 표현하지 않았고 악세서리는 여성스러움보다는 강렬하고 개성적인 악세서리를 사용하였다.

2000년대 팝 패션에서 에로티시즘은 성을 무조건적인 노출이나 상품화하지 않고, 패셔너블하고 화려하게 재해석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는 바, 속옷디자인을 복식에 도입하는 혁신적인 시도나 무질서한 노출보다는 상징적, 여성스러움으로 나타난다. 이는 페미니즘과 여성적 사고의 확산과 뉴밀레니엄적 낙관론이라는 트렌드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표현이 자유롭고 감성지향적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패러디

패러디적 특성은 일종의 비판 형식을 취하는 예술의 모방기법으로서 단순히 향수적인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과거라는 창고 속에 들어박힌 이미지들을 살살이 뒤져 풍자적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창조전략이다.²⁰⁾ 패러디는 선행된 친숙한 소재가 패러디스트(Parodist)에 의해 모방되면서 시작되는데 유머러스하며 애교있는 방법으로 당혹스러우면서도 친근한 요소를 대중에게 접근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술의 한 장르로서 복식에서도 이러한 패러디 기법은 많이 언급되어 왔고, 특히 20세기 후반의 팝아트,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복식에서는 역사적 입장으로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복식을 창조하는 패러디 기법이 두드러진다.²¹⁾

선정된 61점 사진 중 패러디적 요소로 분류된 것은 21점이었으며, 전체에서 39.3%를 차지해 비개성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러한 팝아트의 패러디적 특성이 발견된 사진 21점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7>~<그림 20>과 같다.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적 이미지의 복식 지표는 X라인 원피스, H라인 원피스, A라인 스커트 등의 원피스가 주종으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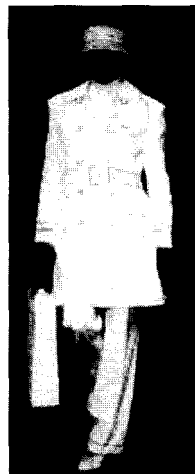
<그림 19> Gaspard Yorkievich. (2000 S/S)



<그림 20> Arkadius. (2002 S/S)



<그림 17> Ohyal. (2000-2001A/W)



<그림 18> Moscheap & chic. (2001-2002A/W)

태가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민소매셔츠 스트레이트 팬츠, H라인 코트, H라인 브라우스 등과 H라인 탑, 시프트 실루엣 원피스 등도 사용되었다. 또한 캐주얼한 이미지의 민소매, 프릴, 개더, 단추, 슬릿, 지퍼, 후드 등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사용되었다.

색상기표도 역시 무채색, 비비드, 파스텔 등의 모든 색상계열이 혼용됨을 알 수 있는데, 무채색 계열로는 검정의 빈도가 두드러지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흰색, 회색계열과 발달하고 경쾌한 이미지의 빨강색 계열, 노랑색 계열도 많이 나타났다.

직물은 편안하고 활동적인 니트와 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 실크, 쉬폰, 모직 등도 많이 사용되었다.

무늬는 만화 특히 아톰이 날아오는 장면(그림 17)이 해학적인 의미의 무늬로 그려졌고, 알파벳이나 영어 문장이 낙서로 그려져 대중적인 무늬로 사용되었다. 가장 빈도가 높은 무늬는 영어문장이었고, 알파벳, 만화, 영문로고와 상표, 얼굴, 여자전신사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러디에서 풍자적 요소는 무늬기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깊은 의도나 이두운 문체의 풍자보다는 단순하고 해학적인 풍자가 눈에 띄는데 이는

20) 서성득, "포스트모던패러디와 차용된 표현", *월간미술* (1992,3), p. 117.

21) 고현진, 김민자,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복식 25권* (1995), p. 250.

즐거움을 소구하고 재미와 유우미를 추구하는 21세기 문화의 영향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옷의 디테일을 모두 가짜로 그려 넣어 가벼운 해학적 요소<그림 18>로 사용한 것, T셔츠에 표현된 기아에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어린이의 얼굴<그림 19>은 진지한 풍자적 무늬이며, 색시한 여자의 전신을 단정한 정장으로 프린트한 것은 에로티시즘의 유미적 풍자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색시한 시스루 원피스에 많은 수의 야기사진을 무착<그림 20>하여 여성이 갖는 출산이라는 분체에 대해 21세기의 시대상에 대한 의미심장한 풍자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복식에 나타나는 페러디는 2000년대 트렌드의 영향으로 예전의 팝 패션에 비해 현실주의에 냉소적인 자세를 갖는 시대상황과 뉴밀레니엄에 대한 낙관론을 즐기는 문화 동향의 영향으로 무겁지 않는 작가의 의도가 가벼운 해학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IV. 결 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초기 패션에 나타난 비개성, 개방

성, 에로티시즘, 페러디의 4가지의 팝아트패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코드화할 수 있다. 팝아트 패션에서 비개성적인 이미지는 무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형태에서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형태는 활동적이고 편안한 기표들과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기표들이 모두 사용되었고, 디테일은 현대적이고 쾌서너블한 기표들을 사용했다. 색상은 비비드 색상과 무채색의 사용이 병행되어 강렬하고 세련됨을 나타냈고, 직물은 화려하고 과시적인 기표를 선보였다. 무늬는 신문, 알파벳, 영문로고, 상품 등이 기표로 개성을 감춘, 대중적이고 복제적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약세서리는 쾌서너블하고 개성이 강한 특성을 나타냈다.

개방적 이미지는 복식의 디테일과 약세서리에서 그 특징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직물과 무늬면에서는 뚜렷한 기표가 나타나지 않았다. 형태는 주로 직선적인 형태들이 사용되어져 편안하고 활동적인 의미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전위적인 디테일이나 과도한 약세서리의 사용하여, 다른 기표들의 대담한 이미지가 더 강조되어 표현되었고, 지극히 선명하며 강한 대비에 따른 배색이 주류를 이루었다. 무늬는 여러 가지 팝아트적이 아닌 특성들이 혼합되어 나타

<표 3> 2000년대 초기패션에 나타난 팝아트요소의 코드

기표	비개성	개방성	에로티시즘	페러디
형태	이러 형태들이 혼합됨	주로 H라인 실루엣	주로 X라인 실루엣	여성스러운 형태 많이 사용
디테일	지퍼, 비데칭밀단과 소매, 슬릿 등 내담한 디테일 사용	가위밥, 올풀림, 오브제 부착 등 강렬하고 전위적인 특징	노출이 심한 극도의 색시함	여러 가지 디테일 혼용
색상	무채색 강렬하고 매력적인 색상	검정과 비비드한 색상 강한 대비의 배색	무채색과 금·은색 사용 많음	여러 가지 색상혼용
직물	모피, 니트, 비닐	니트, 메쉬, 면	쉬폰, 비치는 직물, 광택직물	니트, 면
무늬	그라피토키법, 스타사진, 브랜드로고, 알파벳, 국가, 지폐, 신문 등 무늬들의 혼합	여러 무늬 혼합적 사용	특별한 무늬 사용 없음	영문, 알파벳, 만화 등 주요 페러디의 특징이 집중적으로 표현
약세서리	모자, 장관저, 하이힐 등 쾌서너블하고 강한 이미지의 약세서리	개방성의 특징적 요소 전위적, 미래적, 장식적 약세서리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약세서리	활동적이고 발랄한 약세서리

났는 바, 단순한 기하학적 패턴, 인공적인 합성섬유 등으로 표현되었다.

개방성은 2000년대는 자기의 가치관을 보여주며, 나만을 위한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미완의 제품을 추구하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기존과 전혀 다른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를 증시하는 트렌드의 영향으로 찢어지고 신체가 노출되는 과도하고 전위적인 기표, 금속안테나 부착과 같은 미래적인 기표를 몸체에 부착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로티시즘은 복식의 형태와 디테일에서 특징적 기표가 집중되어 나타났고 특정한 무늬의 집중적 사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형태는 무릎 위 길이의 X라인이나 무릎길이의 H라인 워피스가 기표로 사용되고, 디테일은 프릴 같은 극도의 여성스러운 디테일과 가터벨트 같은 개성적인 섹시함이 드러나는 기표가 함께 선보였다. 직물은 쉬폰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광택소재의 사용으로 화려한 색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무늬에서는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기표는 볼 수 없었고, 악세서리는 여성스러움보다는 강렬하고 개성적인 기표를 표현되었다.

또한 페러디에서는 부늬에서 주요 특징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디테일과 색상에서는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 형태는 여성적인 기표와 활동적이고 편안한 형태들이 사용되었고, 디테일과 색상은 모든 발랄하고 활동적인 기표들이 혼용되어 나타났다. 직물은 편안하고 활동적인 기표가 사용되었고 악세서리는 활동적이며 패셔너블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0년대 초기의 팝아트 패션은 비개성, 페러디성, 에로티시즘, 개방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생활에 걸쳐 '인간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예술적이고 장인적인 과거문화를 지향하는 트렌드의 영향으로 '비개성'의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00년대의 낙관론적인 관점과 하이테크 지향적인 트렌드의 영향으로 전위적이고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개방성은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2000년대의 팝아트 패션은 1960년대의 팝아트 패션과 비교하여 현재의 시대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표현되고 있었다. 즉 비개성적 요소는 솔직한 욕망을 추구하고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추구하

는 2000년대 트렌드의 영향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표현되었으며 급변하는 트렌드에 부합하기 보다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큰 변화볼 보이지 않고 1960년대의 비개성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만 차이점으로는 여러 가지 비개성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 팝아트패션에서 에로티시즘은 성을 무조건적인 노출이나 상품화하지 않고 패셔너블하고 화려하게 재해석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 여성적 사고의 확산과 뉴밀레니엄에 대한 낙관론이라는 트렌드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표현이 자유롭고 감성지향적으로 변화되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페러디의 표현은 여러 가지 깊은 의도나 어두운 문제의 풍자보다는 단순하고 해학적인 풍자로 표현되어 이는 즐거움에 소구하고 재미나 유희를 추구하는 21세기 문화의 영향이 긍정적인 페러디 현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로 2000년대 팝아트 패션도 1960년대와는 다르게 장식주의와 기능주의가 합쳐져 과장된 조화를 이루고, 솔직 욕망을 지향하고 재미와 유희를 추구하는 뉴밀레니엄의 낙관론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여성스럽고 전위적이며 밝고 즐거운 팝아트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공경희 (1987). "20세기 미술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기숙 외 2인 (1999). *의류학과 패션*, 서울: 교문사.
- 김경웅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춘일 (1986). *팝아트와 현대인*, 서울: 열화당.
- 나수임 (1995). "의류광고의 기호학적 의미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호 (1996). "미국 Pop Art의 Object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순 (1995). *대중매체의 기호학*, 서울: 나남.
- 서우석 (1999). *기호학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손미경 (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팝 아트 스타일의 토탈 코디네이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신미 (1996). "1990년대에 재조현된 Pop Art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명 (1990). "Pop Art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수 (1987). "팝아트(Pop Art)의 표현과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덕 (2001).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국 역 (1987).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서울: 열화당.
- 정혜선 (1987). "패션에 미친 팝아트(Pop Art)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198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학사.
- 김덕자 (1993). *광고와 에로티시즘*, 서울: 미진사.
- Karylyne Anspach (1967). *The way of fashion,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Lawrence Alloway (1975). *American Pop Ar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Lucy, R. Lippard (1966). *Pop Art, New York: Fedrick A praeger Inc.*
- Ted Polhemus & Lynn Procter (1984). *Pop style, London: Vermilion & Company.*
- 삼성패션연구소 (2000) Fashion Trend.
- 삼성패션연구소 (2001) Fashion Trend.
- 삼성패션연구소 (2002) Fashion Trend.
- 삼성패션연구소 (2003) Fashion Trend.